

# 전남도,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제공'...보호·지원 강화

### 긴급 보호 필요 피해자에 임시숙소 제공...최장 30일

### 국비 1억4400만·지방비 8400만 등 2억2800만원 투입

전남도가 스토킹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일상적인 삶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나섰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긴급 주거·임대주택 지원은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 공모 사업' 선정으로 추진된다.

국비 1억4400만원과 지방비 8400만원 등 총 2억2800만원을 투입해 '여성 여성쉼터'가 사업을 운영한다.

긴급 주거 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개별 거주 방식으로 6호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 편의를 보장한다. 입소 기간은 7일 이내로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피해자와 동반가족

이 생활할 수 있고,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4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피해자에겐 상담,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 지원과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주거지원 시설에는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피해자가 스토킹 후유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 생활을 유지하도록 촘촘하게 보호·지원하겠다"며 "피해자의 심신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전남지역 스토킹 피해 신고는 2020년 75건, 2021년 335건, 2022년 785건 등 총 119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4대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구현 위한 외부강사 초청 교육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이틀간 광주전남본부 기술 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4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행년 전문강사와 양재훈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이

번 교육은 4대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을 이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역할을 알아보는 등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기술 분야 신규입사자 및 여성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성별 간 갈등 요소를 인식하고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전남본부는 4대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세대 간·성별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빛원전력본부 3일 홍보관에서 누리보듬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한빛원전력 제공)

## 한빛원전, 영광 청년문화 예술가 발굴...예술활동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사업장 소재지인 영광지역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한다.

한빛본부는 전남 홍보관에서 누리보듬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협약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누리보듬은 청년들의 문화·예술적 욕구 해소와 취·창업 역량강화를 돕는 청년 예술가 지원 단체다.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영광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해 지역 예술가를 발굴하고 예술가들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목공예, 밴딩스케치, 금속공예, 토탈공예, 생활자수, 토탈미술 총 6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나영주 한빛본부 지역협력부장은 "한빛본부가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지역의 문화 예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보듬 박성호 대표는 "한빛본부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예술인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 "새봄맞이 화전놀이 체험" 오는 8일 전남농업박물관

전남도농업박물관은 오는 8일 쌀문화관 2층에서 열리는 새봄맞이 화전놀이 체험행사 참가자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행사는 화전 만들기, 꽃지미 만들기, 체험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체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화전놀이는 삼월삼짇날 들놀이를 할 때 진달래꽃을 따서 찹쌀가루에 섞어 지진 화전을 찰식으로 먹는 풍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속이다.

옛부터 우리 조상은 진달래 화전을 비롯해 봄에는 배꽃으로 만드는 이화전, 여름에는 장미화전, 가을에는 황국화와 국화전을 부쳐 먹었다.

꽃이 없을 때는 미나리잎, 쪽잎, 버섯, 대추 등으로 꽃모양을 만들어 붙여 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임영호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4일 "봄을 맞아 민족 고유의 화전놀이 문화 재현을 통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추억과 향수를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전화(061-462-2752)나 누리집(http://www.jam.go.kr)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인당 5000원의 참가비가 있다.

서선욱 기자

## 'AI 인재양성 메카' 광주 AI사관학교 인기

### 330명 모집 779명 지원 2.4대 1...10대도 지원

인공지능(AI) 전문인력의 요람인 광주 'AI 사관학교'가 인기 상종가다. 신규 교육생 모집에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인재들이 몰렸다.

4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와 함께 추진중인 AI사관학교 신규(4기) 교육생 330명 모집에 전국 각지에서 779명이 지원해 2.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연령·직업·전공별로 다양하게 포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460명이 지원했고, 전남과 전북을 더하면 호남권에서만 597명이 지원했고, 이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11명, 영남권(부산·경남, 대구·경북, 울산) 53명, 충청권(대전, 충남·북) 16명, 제주 2명 등 비호남권에서도 대거 지원해 전국적인 관심을 보였다.

남성이 522명으로 67%에 달했고, 연령별로는 마이스터고 등 만18세 12명, 19~25세 280명, 26~30세 320명, 31세 이상 166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취·창업 준비생이 7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스타트업 종사자도 43명에 달했다. 전공으로는 컴퓨터·정보통신 133명, 공학(전자·기계) 160명, 자연(과학·수학) 76명, 인문 202명, 기타(예체능) 208명으로 분포됐다.

1차 서류심사와 온라인 기본과정, 기술역량 검증, 심층 면접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 3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AI 사관학교는 2020년 첫 모집을 시작으로, 지난 3년 간 탄탄한 AI 교육과정을 통해 총 600여 명의 우수한 AI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개교 3년 차인 지난해부터는 교육인원을 18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 운영했고 단일 과정이었던 커리큘럼도 현장 직무분석을 토대로 복수 과정으로 운영중이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카카오 개발자, 현대모비스 SW 개발자가 특강 강사로 참여해 AI 학습법 코칭, 개발 경험과 노하우 공유, 진로·커리어설계 등 현장



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은 10개월간 인공지능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 프로젝트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내용은 3개의 트랙(AI 모델링, AI 기반 서비스, AI 플랫폼·인프라)으로 구성된다. 10개 반에 배치되며, 6월7일부터 12월5일까지 AI사관학교 교육장인 광주 대성학원 빌딩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교육비 전액과 교통비, 중식비, 기숙사비, 교재·학습 콘텐츠 등 일체 경비를 지원받는다. 노트북 등 교육기자재와 함께 AI 전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콘텐츠와 응시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62-710-325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환 기자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ities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녹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구분  | 고소득층     | 중소득층     | 저소득층    |
|-----|----------|----------|---------|
| 1분위 | 240,833원 | 125,531원 | 79,147원 |
| 2분위 | 1.7배     | 2.1배     | 2.7배    |
| 3분위 | 2.1배     | 2.7배     | 5.3배    |
| 4분위 | 2.7배     | 5.3배     |         |
| 5분위 | 5.3배     |          |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0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